

# “화상인쇄과 잘 나갑니다”

인천전문대학 화상인쇄과 홍유경 학생회장

인천전문대학 화상인쇄과 학생회장 홍유경양은 첫 모습부터 활기가 넘쳐났다. 과에서도 나이 어린 남학생들이 자신을 누나가 아닌 형처럼 대한다는 홍양은 매우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것처럼 보였다.

홍양의 이 같은 성격은 개방적이고 너그러운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. 이런 성격 때문에 편집디자인 분야로의 취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역동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곳으로 진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.

홍양은 인쇄과와의 인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“화상인쇄과(입학당시는 화상매체과)는 인천전문대학에서 소위 가장 잘 나가는 과였습니다. 재수했던 저에게 취업률이 높고 장래성도 좋다는 것은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. 그러나 처음에는 화상인쇄과에서 무엇을 배우는 지도 잘 몰랐습니다. 한 1학기 정도가 지난 후에야 전공이 인쇄라는 것을 알았지요. 그래서인지 픽셀이나 사진실습과 같은 부전공 분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”라며 과 적응에 어려움도 있었음을 밝혔다.

그런 후 홍양은 21세기에는 전자책의 발전 등 인쇄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21세기 인쇄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.

“제 동생은 원래 책 읽기를 무척 싫어합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책을 읽고 있더라구요. 이러한 젊은이들에 대한 인터넷의 접근성은 앞으로 인쇄·출판업계가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”

목표는 꼭 이뤄야만 직성이 풀리는 욕심 많은 홍양에게는 한 가지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. “한 번은 인도로 여행을 다녀올 심산으로 레코드 점에서 6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 머리 속엔 인도밖에 없었지요.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하는 바람에 인도여행은 다음기회로 미뤄야만 했습니다. 6개월 꼬박 모은 2백만원엔 어머니께 드렸죠. 어머니는 6개월 간 고생해 번 돈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며 한사코 받기를 거절하셨지만... 그래도 어려울 때 부모님께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뿌듯합니다”라고 말하는 홍양의 얼굴에선 그 때의 기쁨이 번져 나오고 있었다.

〈조갑준기자〉

